

■ S-109 ■

Clinical Characteristics of Ischemic Colitis: Focus on Predisposing Factors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Gangneung Asan Hospital, Gangneung, Korea

*Kyoo Ho Choi, Hyun Il Seo, Sa Young Shin, Jong Kyu Park, Koon Hee, Han, Young Don Kim, Gab Jin Cheon

Background and Aim: Some ischemic colitis (IC) patients discuss with their healthcare provider about the predisposing factor or event before the onset of disease. However, studies on predisposing factors for IC are lacking.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IC, focusing particularly on the predisposing factor. **Methods:** A single-center retrospective analysis of 159 IC patients from 2000 to 2014 was conducted. Clinical characteristics, laboratory data, endoscopic findings, and medical records were reviewed. We defined a predisposing factor as the factor that was a temporal or an episodic event occurring within a week before the development of IC. The following events were included as predisposing factors for IC: colonoscopy, enema or episodic use of laxatives, heavy drinking, pancreatitis not related to alcohol consumption, shock (including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nd sepsis), burn, and diarrhea unrelated to enema or use of laxatives. We excluded diarrhea if it occurred consecutive to hematochezia on the same day or between the onset of abdominal pain and hematochezia.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these predisposing factors,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predisposing factor (+) and (-) group. We compared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two groups. **Results:** The predisposing factor (+) group had relatively higher male dominance (56.9% vs 33.3%, $p=0.005$), younger age (60.9 ± 15.4 vs 67.2 ± 13.4 years, $p=0.010$), lower incidence of hypertension (43.1 vs 60.2%, $p=0.044$), and less number of risk factors (1.24 ± 1.18 vs 1.82 ± 1.22 , $p=0.005$) compared to the (-) group. **Conclusions:** In case of the predisposing factor (+) group, IC can potentially develop in a relatively younger population with less number of risk factors and can show relatively higher prevalence in males. This suggests that predisposing factors, mostly related to dehydration, contribute to the pathogenesis of IC. Therefore, it may be possible to prevent IC by controlling the predisposing factors in this group.

■ S-110 ■

직장선반(Blumer's rectal shelf)으로 진단된 위암의 직장으로의 재발 1예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

*박범수¹, 차재명², 전정원³, 윤진영⁴, 광민섭⁵

배경: 직장선반(Blumer's rectal shelf)은 직장 수지 검사 또는 내시경 검사로 확인 가능한 직장으로의 전이성 암을 시사하는 특이 소견이다. 저자들은 4년전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되어 근치적 절제술 및 수술 후 항암요법을 시행받은 68세 남자 환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결과 직장선반으로 의심되는 점막하 종괴를 관찰하였지만, 다른 재발의 증거가 없고 단순 조직검사상에서 재발이 확인되지 않아 점막 절제 후 심부 조직 검사를 통해 재발을 진단한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68세 남자환자는 4년전 진행성 위암(Signet-ring cell carcinoma)을 진단하고 위 부분절제술 및 공장문합술, 우결장절제술을 시행 받고,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으로 FOLFOX 12차 및 Tegafur 를 1년간 복용하였다. 그 후 3개월 간격으로 외래에서 복부 CT를 추적 관찰 하였지만 위암의 재발 및 전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수술 후 4년 뒤 변비를 주소로 외래 방문 후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 하였으며, 항문연 약 3cm 상방에 점막하 혈관이 관찰되지 않고 충만감을 보이는 직장선반으로 판단되는 종괴가 관찰되어 점막 생검을 시행 하였으나, 악성 세포는 관찰되지 않았다. 복부 CT 검사에서 복막 전이 및 재발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PET-CT를 시행 하였으나 역시 재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직장내시경 검사에서 직장 선반으로 의심했던 종괴에 대해 내시경칼을 이용하여 점막 절개를 시행한 후 심부 조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위암에서 유래된 저분화세포암으로 진단 되어 직장 선반으로 확진 할 수 있었다. **고찰:** 위암의 직장으로의 재발은 일반적으로 복막 전이 및 재발 소견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증례와 같이 다른 장기의 재발 소견 없이 직장에 국한된 직장 선반 소견으로 관찰될 수가 있다. 하지만, 다른 장기의 재발 소견이 없더라도 내시경 검사에서 직장 선반이 의심되면 점막 조직 검사에서 악성 세포가 보이지 않을 때는 점막 절개를 시행한 후 심부 조직 검사로 직장에 국한된 재발을 진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증례는 아직 국내에 보고된 사례가 없어 보고하는 바이다.